

전남도·지자체, 지역 축제 개최 '엇박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담양 한우축제·광산구 통일열차 운행 취소 광양숯불구이·영광 e-모빌리티·순천 균형박람회 예정대로 열려

가을 축제를 앞둔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딜레마에 빠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병하는 등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오래 전 확정된 축제인 만큼 치러야 할지,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업인들의 모임조차 금지한 점을 고려하면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제 8회 담양한우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예방 소독과 차단 방역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확산이 무섭다 보니 생생한 축산농가 모임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많은 축산인들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담양군 판단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오는 21일로 예정된 광주 평화통일 열차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청소년 300여명이 기차로 도라산역까지 이동하는 프로그램인데, 열차 도착지이자

주요 방문지인 경기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미루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도 9·19 선운 1주년 기념해 오는 20일 예정한 제 2회 광산 통일 열차 운영을 취소했다. 반면, 광양숯불구이축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광양읍 서천변 일대에서 계획대로 치러진다. 정부가 소독·차단 방역을 위해 축산 농가 모임을 금지한 것과 달리, 축산인들을 비롯,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셈이다. 'e-모빌리티 엑스포 산업전시회'는 예정대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영광에서 치러진다. 오래전 기획된 행사인 만큼 고심 끝에 치르기로 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

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도 애초 계획대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치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여수에서 열리는 '2019 국제 섬 포럼'과 금오도 섬 투어도 25일부터 3일간 계획대로 열린다. 폐사율이 100%인데도, 치료제가 없어 만약을 대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 자제토록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민들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포에 떨고 있는 양돈농가들과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다만, 순천시는 최근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감안해 주최측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주관부서인 전남도,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예방 대책을 논의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공예명장' 도전하세요

10월 25일까지 후보자 접수 도자 등 8개 분야 2명 선정

전남도가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2019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을 위한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산업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예인을 대상으로 도자, 유리·석, 금속, 목·죽·세, 종이, 섬유, 가죽 등 총 8개 분야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격 대상은 15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주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남도 공예품대전에서 동상 이상, 또는

전국 공예품대전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다만 동일 분야 명장 또는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있거나,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예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 휘장 및 명장패(현판), 장려금 500만원 등이 주어진다. 공예명장 신청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도자 4명, 목공예 2명, 총 6명의 공예명장을 선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에 치어 방류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용전동 인근 영산강 둔지에서 '영산강 아메니티운동 봉사단'과 주민, 학생들이 강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e스포츠 상설 경기장 '반쪽' 우려'

이경호 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려 조선대에 구축하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사진) 의원은 19일 문화관광체육실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조선대에 우선 사용권을 180일 이상 보장했는데, 상설경기장이 구축되더라도 1년에 절반만 기능을 발휘하는 '반쪽짜리' 경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조선대와 매출액의 절반을 배분하자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수익 배분의 기준은 전체 매출액에서 운영비,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향후 수익 배분과 관련해 조선대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담하는데, 운영비를 포함해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설경기장 운영으로 연간 12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수익 창출 구조가 불투명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상설경기장 구축으로 게임 연관산업 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60억원(국비 30억·시비 30억)을 투입, 2020년 5월까지 조선대 해오름관에 1천석 규모의 주 경기장, 16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액수 따로 대상 따로'...전남도 농민수당 어떻게 할까

도·도의회·농민단체 다른 조례안 제출...진통 예고

'내년부터 농·어가 24만3122가구에 60만원씩 1458억원을 지급하자'(전남도), '내년 기준, 농업인 32만3967명에게 120만원씩 3887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주민청구), '농·어업인 34만7818명에게 120만원씩 4173억816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전남도의회).

도 대안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고 발의된 농·어민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3개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 집행부, 이보라미(정의당) 의원 등 도의원 25명, 농민단체 등에 의한 주민청구 등으로 발의됐다. 농·어민 수당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은 각 조례안의 공통점. 하지만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는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 농·어 가구당 지

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인 21만9465가구, 어업은 2만3657가구 등 24만3122가구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 주도록 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부정수급 우려 등을 들어 전남도측은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3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어떤 조례안을 골라야 대안을 만들지, 농·어민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수당은 없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연안어업인연합회,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이 전남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 조례안 관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군 협의를 거쳐 연 60만원으로 합의했다. 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 주도록 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가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지급액 격차, 부정수급 우려 등을 들어 전남도측은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3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어떤 조례안을 골라야 대안을 만들지, 농·어민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수당은 없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연안어업인연합회,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이 전남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 조례안 관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체육진흥 국비 494억 확보

전남도는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비 494억원을 확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지방체육시설 지원과 노인 건강체육시설 지원 등 5개 분야 54개 사업이 선정돼 균형발전특별회계 289억원을 확보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여수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

에인을 위한 신안 반다미 체육센터 건립 등 국민체육센터 8개소와 강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총 18개 사업이 선정돼 20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는 시군 및 교육청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부지 확보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문제부를 방문해 별도의 사업 설명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18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